

World Focus

세계는 여수를 주목한다

세계속의 여수 Expo 2012

Power Interview

새로운 한류 / 박흥근 흥패션의 이선희 CEO

Global strategy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인력 / 이훈재 단장

International

하버드 대학 캐네디스쿨 포럼연설 / 송민순 외교부장관

Hot Issue

JMS 정명석 前총재 명예회복을 위한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신경숙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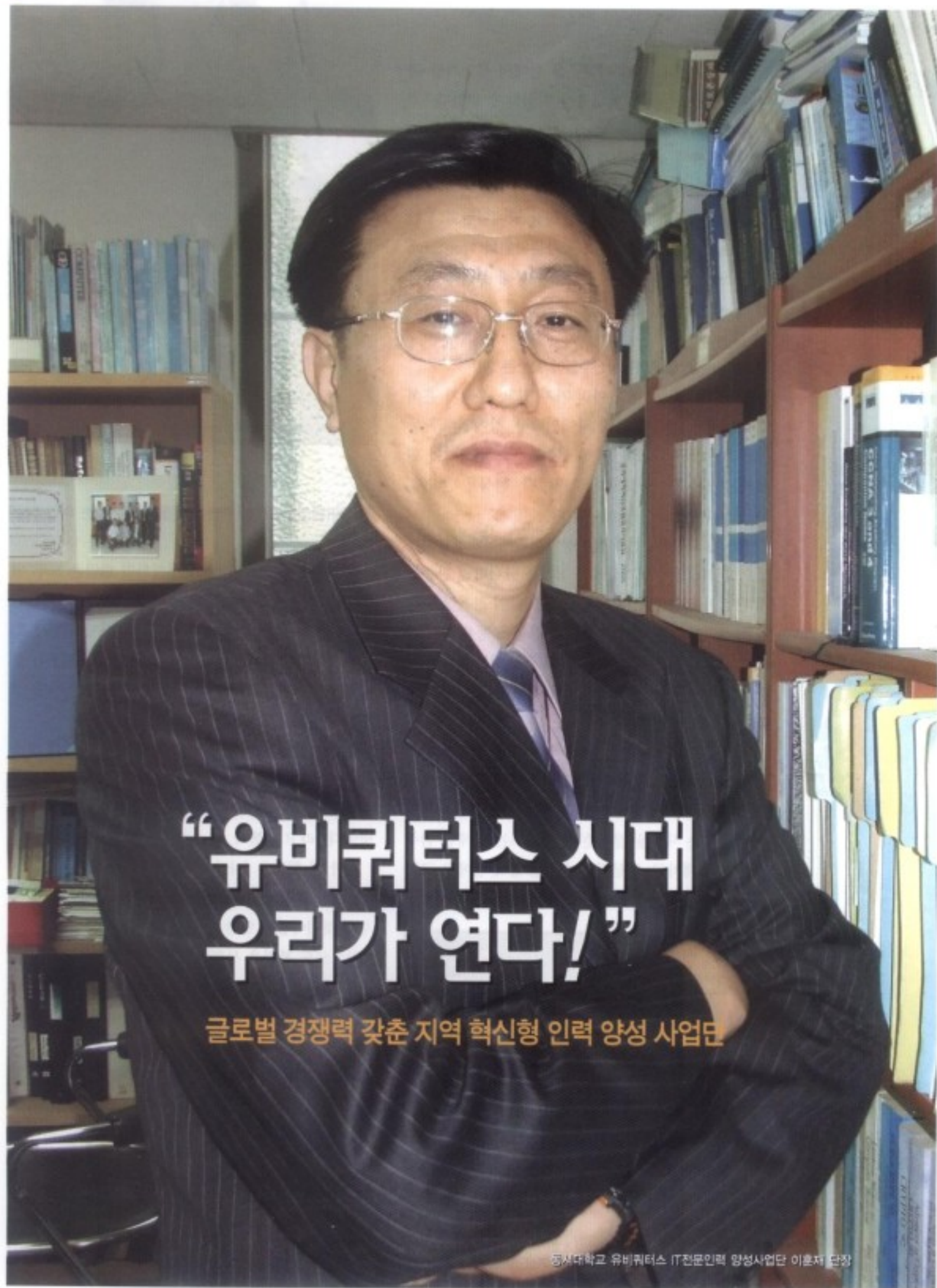


산업자원부 이두민 공학박사

대한뉴스 발행



9 771739 821006
ISSN 1739-8215



“유비쿼터스 시대 우리가 연다!”

글로벌 경쟁력 갖춘 지역 혁신형 인력 양성 사업단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이훈재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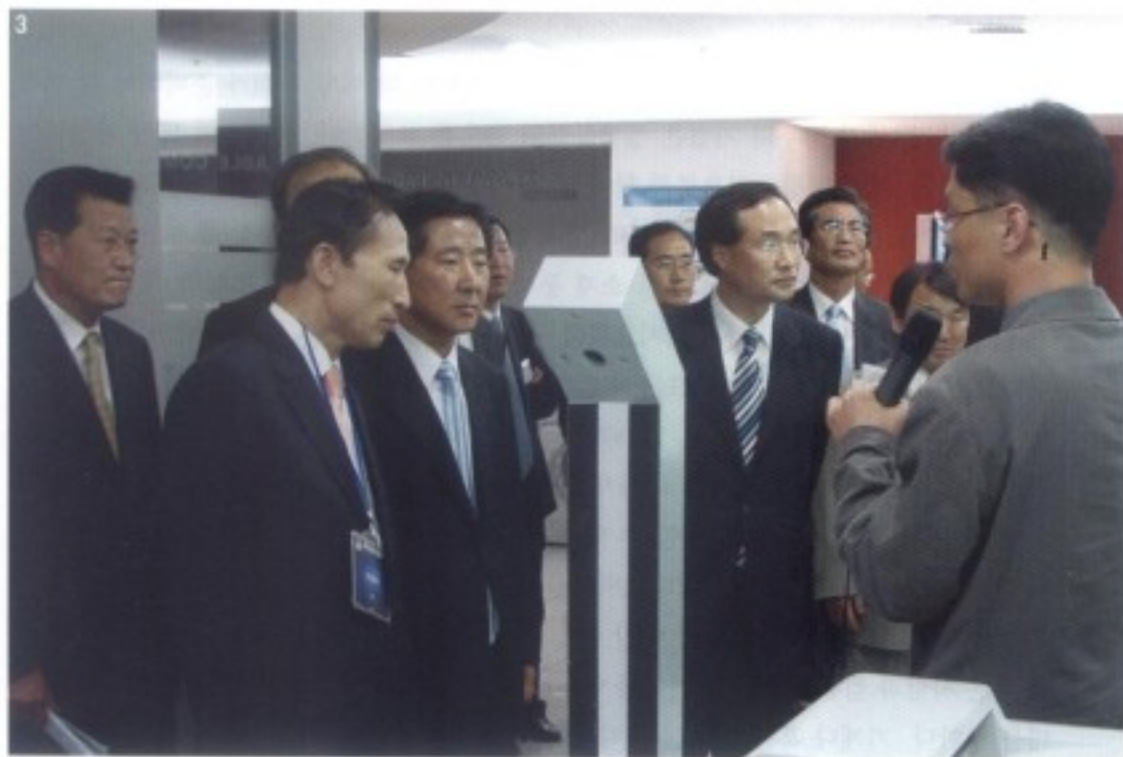
현재는 21세기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으며 21세기는 더 이상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아니다. 21세기 정부와 기업은 성장동력의 확충을 요구한다. 미래산업 또한 마찬가지다. IT산업도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IT기술로는 더 이상 산업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부산 소재 동서대학교가 유비쿼터스 특성화 사업의 IT 인력 양성 산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서대학교는 유비쿼터스라는 키워드를 2003년도에 도출,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RIC 사업 선정, 2004년도에 누리 사업, 2006년도 BK21 사업에 연속적으로 선정되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곳곳에 널려있는 컴퓨팅 센서를 통하여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서네트워크를 통해서 손쉽게 연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한다. 더 이상 컴퓨터나 기계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혹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어떠한 인터페이스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계나 혹은 컴퓨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컴퓨터가 우리 주위에 스며들어 우리 주위를 맴도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비쿼터스가 이루어낼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까. 세계적인 수준의 u-IT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의 이훈재 단장을 만나 보았다.

전국대학 최초 '유비쿼터스 체험관' 개관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2004년 7월에 출범, 2009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정부 지원금 125억 포함 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효율적인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으로 동서대-경남정보대-부경대 3개대 공동 취업 프로그램, 취업 전제 인턴십 및 산업체 현장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혁신형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동서대 사상 사이버캠퍼스, 부경대 남구교육벨트 등 지역 IT봉사와 IT실무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등 u-IT 지역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서대 내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체험관은 현재 2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비쿼터스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있으며, u-체험관 등 협력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고부가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및 지역 사회 환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은 유비쿼터스 체험화를 위해 학교의 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체험관과 유비쿼터스 IT 건물을 신축 했다.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일반인까지 관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유비쿼터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뉴밀레니엄관 2층에는 유비쿼터스 홈 체험관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이 열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상했는지 등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학으로선 유일하다."고 이 단장은 말했다. "부산 시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이 단장을 통해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포부를 읽을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국제자격증 400여건 취득

사업단에서는 유비쿼터스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가장 크게 본다. 이 단장은 "사업관련해서 매년 600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배출된다. 그 중에서 일반 IT로 가는 학생이 대략 60%, 유비쿼터스 특화 분야로 대략 40%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특화 분야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비쿼터스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센서네트워크, RFID 및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3학년부터 2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신기술 실험시설과 특화된 교육과정 트랙을 개발하였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식 수업을 통해서 외부 기업체 CEO와 기술 이사진들이 수업을 공동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 사업단은 "시스코 네트워크트랙을 특화하여 경남정보대와 '2+2+2'의 연계과정을 갖추고 있다. 경남정보대에서 2년 트랙과정을 수료하고 동서대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은 2년간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디자인&IT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6년간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이 단장은 말했다. "이를 통하여 지난 3년간 네트워크분야 최고 자격증인 시스코 CCIE 자격증을 10여명 취득하였으며, 이들은 KT, SK 등 확실한 취업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고급자격증인 CCNP와

CCNA 자격증을 무려 390여건 취득한 명실상부한 네트워크 전문가 양성의 산실이다.”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의 인력양성 계획을 목표로 고교 특강 및 동아리 지원을 통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산학연계를 통한 산학 공동 교육으로 현장 적응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학 및 정보화 교육, 전공 관련 국제 자격증 지원, 해외 IT연수, 그리고 졸업생 리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단장은 “누리사업 이전과 비교할 때 토익과 같은 공인어학성적이 놀랍게 향상됐다. 또한 동서대의 경우 60% 이상이 지역산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지역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단은 3년간 평균 취업률 79.7%, 국제자격취득자 취업률 92%, 지역산업체 취업률 66.7%를 달성하였다. 이 단장은 “누리사업이 종료되어도 동서대학교의 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소견을 밝히며 “우리의 IT기술과 BT 기술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동북아를 호령하던 한민족의 기상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동북아의 명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본 사업단이 꼭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러한 그의 각오를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의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부디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끊임없는 발전과 높은 도약을 기대해 본다.

취재김혜진 기자



사업단은 산학공동강좌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